

[정시 연대생의 생윤 Final Note 맞보기]

롤스 원초적 합의 당사자들은 시민 불복종을 규정하는 조건을 채택함

롤스 국제적인 문제는 직접적인 시민 불복종이 어려움

롤스 시민 불복종은 양심적인 행위이며, 이익 집단이 사익이 아닌 정의 실현에 목적을 둔다면 이익 집단도 시민 불복종이 가능하다

롤스 시민 불복종은 성공 가능성을 고려해야한다

롤스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시불에 대한 보복적 억압이 있을 수 없음

롤스 시민 불복종은 동물의 이익관심을 위해서는 안됨

롤스 다수의 정의관에 대한 시불은 정당화 안됨

롤스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더라도 시불 대상이 아닐 수 있음

싱어 시불 중 불법적인 수단의 사용이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 (합법적 수단의 사용의 확장)

싱어 민주주의 원칙에 복종하는 습관이 더 깊이 배이면 배일수록 더 쉽게 정당화 가능

싱어 시불은 법의 힘에 저항하지 않는 한에서만 가능

싱어 폭력을 종식시킬 다른 방법이 없으며, 폭력으로 시불 성공할 확률이 높다면 폭력 O

칸트 세계 시민법은 인간애가 아닌 권리에 근거함

칸트 평화연맹 수립은 자연상태의 회복이 아닌, 자연상태에서 벗어나 법적인 상태에 들어가는 것임 (국제법 적용, 영구평화 실현 O)

칸트 연맹의 확산을 통해 국제 사회는 자연상태를 벗어나야 함

칸트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이 연방제에 기초해 있어야만 한다

칸트 자연상태에서는 외적법칙들에서 독립, 서로 곁에만 있는 것도 서로를 침해하는 것

칸트 비민주적 국가라도 무력 개입은 정당화 X

칸트 상비군은 인간을 도구로 사용함

칸트 특정 국가가 주도한 평화는 진정한 평화 X

코먼웰스 = 홉스, 공적인격 = 루소

홉스 국가의 통치자와 모든 시민은 자연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홉스 시민은 소유권의 침해를 근거로 통치자를 비난해서는 안됨

홉스 주권자는 사람들이 자연법에 따라 계약을 통해 세운 인격이다

홉스 주권자가 하는 모든 행위는 곧 신민 자신의 행위임

홉스 모든 사람은 달성될 가망이 있는 한 평화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함, 평화를 달성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어떤 수단도 사용 가능 (제1자연법)

홉스 평화와 자기방어가 보장되며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경우에만 만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이 타인에게 허락한 만큼의 자유를 타인에 대해 가짐 (제2자연법)

홉스 인간이 본래부터 가진 자연권은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는다면 인류의 평화를 저해함

홉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자연권을 포기할 수 있다

홉스 국가는 평화를 실현하여 국가 구성원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홉스 국가가 이기적 존재인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홉스 국가의 의무는 곧 통치자의 의무이기도 하다

홉스 주권은 국가의 설립 목적에 근거하여 권한이 제한될 수 있음

로크 절대군주제와 시민사회는 결코 양립할 수 없음

로크 입법부가 권력욕으로 인해 집행권까지 가지려고 하는 것을 경계

로크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권력은 분할되어야 한다

로크 시민은 국가와 맺은 사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음

로크 국가가 모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자연권을 동등히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님

로크 국가는 자연적 공동체가 아님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적 공동체로 봄)

로크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최고 권력은 인민에게 있음

로크 암묵적 동의에 의해서도 계약 준수의 의무가 발생함

로크 국가에 대한 폭력적 저항까지 인정함

로크+루소 국가는 자의적이지 않은 법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함